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18일(목) 총 1매		
담당 부서	총무과	담당자	• 공무직운영팀장 문현자 ☎440-2621 • 담당자 김현성 ☎440-262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직원 육아시간 혜택 확대해 저출생 정책에 힘 보탠다
 -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도 육아시간 혜택 지원 -
 - 대상 자녀 나이는...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기간도...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

인천광역시가 양육 부담 완화와 출산을 제고 차원에서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을 확대했다.

육아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하여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일 육아시간 확대를 포함한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규정 개정으로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규정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신속하게 공무직 노조

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시간을 함께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는 국가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소속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공무원 등 근로자에게도 신속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은희 시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소속 근로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